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9일 촛불대선에서 2위인 홍준표 후보를 압도적인 표차로 제치고 당당하게 당선됐다. 강단있고 원칙과 상식을 중시하는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의 인생은 파란만장했다. 대통령이 되기까지 그의 행보는 가시밭길 그 자체였다. 대통령이 되기 위한 그의 고된 행보에도 거침 없이 자신의 길을 걸고 있었다. 지난 9년간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의 비상식적인 국정운영에 힘겨워하는 국민들의 간절함과 절박함, 잘못된 대한민국의 관을 바꿔야만 하는 본인의 권력의지는 그를 청와대에 입성하게 만들었다. 이에 본보는 그가 걸어온 길을 따라가 본다. /편집자주

# 원칙 중시 강직한 성품의 소유자

## ▲어린시절부터 청년시절까지

1953년 1월 경남 거제에서 피난민의 아들로 태어난 문재인은 그곳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게 된다. 당시, 전쟁으로 인해 모두가 힘들었던 시절. 소년 문재인은, 점심을 스스로가 챙겨야 했던 힘든 시절을 보냈다. 학창시절, 학력고사에서 전국 수석급의 성적을 거머쥐었으나, 가난했던 그는 서울대 법학과에 진학하지 못했다. 하지만, 총장이 학비를 지원해준 경희대에 입학할 정도로 알려진다. 청년 문재인은 민주화 운동에 참여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위해 싸워왔으나 박정희 정권의 탄압으로 인해 특전대에 강제 징집됐다. 징집 이후 폭파병으로 배정된 그는 군인 본연의 임무에 충실히 수행했다. 군 제대후에도 열심히 공부해 사법시험에 합격, 후에 뛰어난 성적으로 사법연수원을 차석 수료했지만, 학생운동 전력으로 인해 판공사



특전사 시절 문재인

임용은 되지 못했다.

## ▲인권변호사로서의 문재인

부산으로 낙향한 그는 억울하게 빨갱이가 되어버린 무고한 학생들을 살리기 위해 인권변호사가 되었고, 이후 사회의 약자들과 노동자들을 위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 인권변호사로서의 문재인을 알리는 호칭은 '문변'. 80년대를 관통한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열라야 뿔 수 없는 이름이자, 그의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이 불리우는 호칭이기도 하다. '문변'은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현대중공업 '128일 파업' 등 부산과 울산, 경남지역에서 발생했던 노동 사건들의 변론을 담당했고, 그들의 억울함을 풀여줬다. 향후, 이 노동 사건들은 노동자들의 권익과 사회 지위 향상에 큰 기여를 했다고 전해졌다. 하지만 당시 '문변'은 "내가 특별하기보다는 서 있는 위치가 그랬다"고 스스로를 낮췄다. 그러면서 도움받은 노동자들에게 "노무현과 문재인을 더욱 발전시켜 주신 스승들"이라고 고개를 숙인다.

## ▲'각별한 인연' 노무현과의 만남... 정치는 자신의 길이 아니라면 문재인, 노 대통령 청와대 국정수행을 돕다

## 1부 - 정계 입문하기 전

### 현대중공업 '골리앗 투쟁' 등 부울경서 발생한 노동사건 변론 담당 노동자들 권익 향상에 큰 기여

###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청와대 비서실장까지 보내

### 노 대통령 서거 후 정치와 거리 뒀으나 국민들의 간절함에 다시 정치인의 길로 들어서

문재인이 인권변호사로 활동하는 도중, 팽우인 노무현 (당시)변호사를 만나게 된다. 그 인연은 매우 각별한데, 문재인이 변호사로서 활동하는 동안 언제나 그와 함께 했으며, 노무현이 대통령이 된 이후에는 그의 조력자로서 그의 국정수행을 도왔다. 문재인과 노무현의 인연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안타깝게 숨을 거둔 이후로도 계속 되어오고 있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 선거에서 노무현을 청와대로 임명하는데 큰 도움을 준 문재인은 노무현 대통령의 권유로 2003년 2월 25일, 청와대 민정

수석비서관에 임명돼, 비서실장 까지 지냈다. 2008년 2월 25일, 노무현 대통령의 퇴임 이후 그는 경남 양산에 정착해 변호사로서의 삶을 다시 시작하게 된다. 하지만, 이 생활도 오래가지 못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비자금 문제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됐고, 문재인은 또다시 노무현의 전담변호사로 복귀해 변호업무에 착수한다. 그러나, 검찰은 비인격적인 수사를 진행해 수사과정 내내 노 전 대통령을 모욕했고, 당시 언론을 통해서도 매일 악의적인 보도가 이어졌다. 사지로 몰린 노무현 전 대통령은 2009년 5월 23일 안타까운 죽음을 맞게 된다. 문재인은 매우 슬퍼했으나 눈물을 흘리지 못했다.

## ▲노무현의 죽음 이후 그에게 남겨진 숙제... 정치에 환멸느낀 문재인, 정치에 또다시 뛰어들다

노무현 대통령 서거 후 문재인은 "정말로 비통한 일이다. 나는, 개인적으로, 이런 수사과정 등을 통해서 세상이 싫어졌다. 세상이 가진 악의들이 무섭다. 그래서 세상하고 거리를 좀 뒀어야겠다"고 말했다. 그는 결백에 가까운 정도로 정치에 환멸을 느끼고 있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지

2년이 지난 후에도 변함이 없었다. 하지만, 이해찬, 안희정 등을 대표로 한 '진노라 불리우는 정치인들은 일찍이 문재인을 차기 대선주자로 짐작어두고 있었다. 당시 문재인은 정치를 거부하고 있었으나, 친노 정치인들은 책을 쓰는 것으로 돌파구를 찾았다. 친노 정치인들은 각자가 있던 자리에서 겪은 참여정부를 기록하는 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유적이고 매년 서거일에 맞춰 책을 내기로 한 약속을 문재인이 먼저 지켜야 한다는 논리로 설득했다. 결국 그는 '운명'이라는 이름으로 책을 쓰게 됐고, 출간 후 일주일 만에 베스트 셀러에 오르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각종 여론조사기관에서 야권 대선주자 지지율 1위에 오르게 된다. 이에, 친노 정치인들은 북콘서트를 기획하고 끝내 전국순회로 판을 키웠다. 처음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였던 문재인도, 북콘서트 횡수가 늘어감에 따라 점차 적극적으로 바뀌어갔다. 당시 이명박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절망을 알게 된 문재인은 새로운 정권에 대한 희망과 열원을 수많은 관객들과 공유하게 된다. 오랫동안 노무현의 모습을 지켜봐왔던 그는 정치의 길에서 벗어나고자 했지만, 도로 노무현 때문에 정치의 길로 다시 들어선다.

## ▲국민들의 간절함으로 정계 입문한 문재인, 하지만 제18대 대선 패배의 고배를 마시다

"나는 당신이 남긴 숙제에서 끔찍하지 못하게 됐다"-문재인의 '운명' 중- 문재인을 향한 간절한 민심은 그가 정치에 대한 확고한 결심을 내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국민들의 간절함을 외면할 수 없었다. 당시 문재인은 박근혜를 위협할 수 있는 야당 대선 후보주자였고, 국민들의 절박함은 더욱더 커져만 갔다. 이때 문재인은 정치인으로서의 삶에 대한 결심을 굳히게 된다. 국민들의 간절함으로, 2012년 4월 총선에서 부산 사상구에 출마해 제19대 국회의원에 당선됐고 의정활동을 해오다, 6월 대선 출마를 선언한지 두달만에 민주통합당 대선후보가 되었다.

## ▲정치의인 문재인, 민주당을 혁신하다

문재인은 대선 패배 후 1년여동안 정치적 동안기를 갖게 되고, 2013년 12월, 박근혜의 국정운영을 비판하며 차기대선 출마의 뜻을 밝혔다. 하지만 그의 권력의지를 강력히 뒤흔든 사건이 터지게 된다. 2014년 4월 16일, 수하여행중이었던 경기 안

## 2부 - 정치인 문재인, 대통령이 되기까지

### 2012년 4월 제19대 총선서 국회의원에 당선돼 정계 입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출마 박근혜에게 108만표 차이로 패배

### 2013년, 대선출마 뜻 밝혀 세월호 참사때 유족들 위해 헌신 당 개혁해 참신한 인재영입으로 당 이미지 쇄신해 2016년 총선 대승을 대선서 승리 대통령에 당선

산 단원고의 수많은 학생들을 수장시킨 세월호 참사가 일어났다. 이때 당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팽목항을 방문하자마자 눈물을 흘렸다. 이때 그는 깨닫게 됐다. 권력이 없으면 국민을 보호하지 못한다는 것을, 그는 진도체육관에서 유족들을 위로하고 결을 지켰다. 같은 해 여름엔, 세월호 참사로 인해 딸 유민이를 잃은 김영오씨의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탈리기 위해 그도 함께 단식투쟁에 동참했다. 그리고 청와대 앞에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행진에 나서기도 했으나 달라지는건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다. 같은 해 12월 29일 문재인 의원은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선거에 나선다. 그에겐 결박한



이 느껴졌다. 다른 후보자들과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아 당대표가 된 그는 계파갈등에서 비롯된 내부적인 당 파열로 인해 당내 상황은 좋지 않았다. 그래서 그는 김삼곤 전 경기교육감과 함께 당 개혁을 시작한다. 하지만, 공천권을 원했던 박지원과 조경태, 대선후보가 되길 원했던 안철수, 당권을 원했던 김한길과 대립하게 된다. 문재인 당 대표의 아권분열을 막고자 백명으로 뛰어들어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고 화합하려 노력했으나, 이들은 끝내 분란과 갈등만 거듭하다 대거 탈당한다. 탈당한 이들은 호남지역을 연고로 한 '반문' 정당인 국민의당을 창당한다. 2015년 12월 28일, 새정치민주연합은 더불어민주당으로 당명을 바꾸고 문재인 대표는 인재영입작업에 착수한다. 유명한 프론티어인 표창원, 박근혜 정부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조용천, 국정원에서 오

랫동안 근무해온 김병기, 세월호 변호사 박주민까지 각계각층의 인재들이 영입됨으로서 당내 불안감을 안정시키고 새로 영입된 인재들의 참신함은 당의 이미지 쇄신에도 기여했다. 지난해 4월 20대 총선에서 문재인은 후보 단일화와 지원 유세를 도와 총선승리에 기여했고, 영입인사들이 대거 당선되면서 당내 입지를 공고히 했다. 같은해 11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진 후, 전국순방을 돌며 각종 집회, 시위, 연설에 적극 참여했고 민심을 끌어모으는데 앞장섰다.

## ▲2017 촛불대선후보 문재인, 대통령에 당선되기까지

촛불시민들의 간절함과 함께 2017년 3월 10일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박근혜 파면을 선고했다. 이후 문재인은 대선 출마를 선언하고 본격적인 대선 행보를 보이게 됐다. 당내 경선에서 안희정 총남지사와 이재명 성남시장, 그리고 최성고양시장과의 경쟁 속 당원과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본선에 진출한 문재인은, 일자리 81만개 창출, 치매 국가책임제, 고위공직자 비리수사처 설치, 부정축재 재산 환수, 한미FTA 강화와 주변국과의 협력을 통한 북핵문제 해결, 청년 집 걱정 해결, 군부대 병사 급여 인상, 중소기업기부부 신설, 청와대 중심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구축 등 다양한 공약을 내걸어 표심을 사로잡기에 나섰다. 그리고, 그는 전국순회 유세를 통해 지지를 호소했으며, 이에 수많은 시민들은 열렬히 그

를 환호했다. 5월 9일 결전의 시간, 긴 고해 속 국민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얻은 문재인은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혹자들은 아직도 문재인이 점잖은 언행을 보고 그를 유약하다고 평가한다. 하지만, 청와대 비서실장 시절 호랑이로 알려진 문재인은 원칙주의자이며, 그 누구보다도 강직한 성품을 가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 시절 '반문'들의 끊임없는 공격에도 끝까지 남야 당 개혁을 이뤄냈으며, 당명을 바꾸고 인재 영입에 더불어민주당을 지금의 수권정당으로 만드는데 큰 역할을 해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후 정권교체에 대한 국민들의 간절함은 문재인을 각성시켰고 그는 그 과정에서 매우 절실하게 권력의지를 회고하고 있다. 그 간절함과 절실함은 그를 제19대 대통령으로 당선시킨 원동력이 되었다. 10일, 문재인은 취임식을 거친 후 정식 대통령으로서 국정수행을 하게 된다. 정권교체 이후 대통령으로서의 그가 파란을 일으켜 우리나라를 참여정부때보다 더 훌륭한 나라, 혹은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인재용 기자

\*\*참고자료 도서: 문재인 '운명', 대한민국이 묻는다' 인터뷰: 다음카툰 전종재, 사립사는 세상